

# 민간자격증 3.3만개... 소비자 피해 10건 중 9건 '미구제'

## 허위광고·무자격 강사땀 수강료 전액 환급



정부, 민간자격 표준약관 마련  
소비자 총비용·환불 조건 등 규정  
불리한 약관은 색체 등 표시해야

민간자격증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소비자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민간자격 표준약관을 마련해 피해자 구제에 나섰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민간자격 표준약관을 공동으로 마련해 11일 민간자격관리자 등에게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내 민간자격증은 지난 12월을 기준으로 약 3만3000개에 달한다. 6년 전인 2012년 3378개에서 10배나 증가했다.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사례도 급증했지만 피해 구제를 받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 2015년~2018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2572건으로 연평균 735건 발생한다. 피해

구제는 연간 65건에 불과해 10건 중 9건 이상은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민간자격 표준약관은 교육부가 민간자격관리자와 소비자에게 사용을 권장하는 약관으로, 관련 계약의 표준과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민간자격관리자는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에 앞서 약관을 설명하고, 관련 계약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소비자에게 자격증 발급비용 등 관련 정보제공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응시료나 수강료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소비자가 자격검정 응시신청 기간 이내 계약을 해제하거나 교육훈련의 경우 강습 개시 전에 계약을 해제하면, 이미 납부한 응시료나 수강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허위광고에 의한 응시계약의 체결이나 무자격·자격미달 강사의 강습, 교육훈련시설의 이전이나 폐강, 정원 초과 강

습 등 민간자격관리자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 해제·해지의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이미 납부한 비용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비자의 계약해제와 해지권 행사, 그에 따른 환급 산정 기준을 명확히 했다. 자격검정시험 응시를 포기한 시점에 따른 응시료 환급 산정기준을 명시했고, 소비자가 교육훈련 수강 중도에 포기하거나 민간자격관리자가 변경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기간 수강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예컨대, 소비자가 병원 입원이나 입대나 군입대 등으로 자격검정시험 응시가 불가할 경우 응시료 50%를 환급받을 수 있고, 수강 중이라도 무자격 강사의 강습 일 경우 수강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민간자격 표준약관 사용은 민간자격관리자와 소비자의 자율 사항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민간자격

관리자는 표준약관을 사용함으로써 스스로 약관을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전문가 자문비 등의 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고, 개별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휘말릴 수 있는 약관분쟁의 위험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며 "소비자도 표준약관을 통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자격 표준약관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누리집(www.pqi.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표준약관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상세내역을 추가해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민간자격관리자가 표준약관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수정해 사용할 경우는, 소비자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호', '색체', '굵고 큰 글자' 등으로 수정사항을 표시해야 하고,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등의 불공정약관조항을 넣어서도 안 된다.

약관법에 따라 불공정약관조항은 무효이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의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다. 시정조치에 불응한 민간자격관리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민간자격 표준약관은 소비자와 민간자격관리자 간 분쟁을 사전 예방함은 물론,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민간자격 관련 불공정 거래와 분쟁이 감소되고 민간자격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대학가 소식

#### 국민대-민주평통 성북구협 MOU 통일교육·탈북 대학생 지원

국민대학교(총장 유지수)는 지난 9일 오전 교내 본부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북구협의회와 MOU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민의 통일 의지와 역량을 결집해 민족의 영원인 평화통일을 구현하고자 1981년 설립된 통일기구다. 최근에는 다변화하는 주변국의 정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올바른 통일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지역협의회들은 각 지역별로 통일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주민 간 논의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번 MOU를 통해 양 기관



유지수 국민대 총장(우측)과 이필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북구협의회장이 9일 국민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민대

은 ▲ 뮤지컬 공연, 남북학생 토론 대회 등 통일 관련 교육사업 지원 ▲ 북한 이탈주민 대학생의 학비 지원 ▲ 통일 관련 행사에 대한 시설 및 홍보 지원 등 다양한 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협약식에는 북한 이탈주민 대학생으로 구성된 국민대 '자유동아리'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여 더욱 눈길을 끌었다.

#### 한성대 국제봉사단 '라온라라'

#### 태국 동계봉사 발대식

한성대학교(총장 이상한)는 지난 9일 오전 교내에서 2018학년도 동계 국제봉사단 26기 라온라라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발대식에는 이상한 총장, 김승천 국제교류원장 등 학교 관계자와 봉사단에 참여하는 학생 17명 등이 참석해 해외 봉사활동의 결의를 다졌다.

이번 기수 봉사단 이름인 라온라라는 즐거움을 뜻하는 순우리말 '라온'과 기분 좋아 흥얼거리는 소리를 뜻하는 '라라'의 합성어다.

봉사단은 오는 12일~26일까지 15일간 태국 우따라딕 라자팻대학 병설 초등학교를 방문해 한국어와 과학, 미술, 체육 교육과 벽화그리기, 페인트칠, 태권도와 사물놀이, K-팝공연 등 문화교류를 진행한다.

또 휴식시간을 활용해 한국어교육을 전공하는 현지 대학생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예정이다.

이상한 총장은 "봉사단원들이 국경을 초월한 따뜻한 사랑의 봉사를 통해 유쾌한 나눔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경험이 자랑스러운 한성인이라는 자부심 속에서 봉사단원들의 소중한 꿈을 실현시키는 원동력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 한국외대 장모네 EU센터

#### 한반도평화 학술대회 개최

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김민철)는 장모네 EU센터(소장 김시홍·사진)와 제주평화연구원(원장 김봉현)이 14일 오후 2시 제주평화연구원 세미나실에서 <한반도 평화와 EU의 역할>을 주제로 학술회

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학술회의에는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전 국립외교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



## “손발톱무좀, 하지정맥류 등 혈관질환과 연관”

#### 이석준 광운대 교수 연구팀 발표 서울성모병원 피부과와 융합 연구

광운대학교는 경영학부 이석준 교수 연구팀이 의학과와의 학제간 융합 연구를 통해 혈관질환과 손발톱무좀의 연관성을 양방향으로 확인한 연구결과를 내놨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연구에는 이 교수 연구팀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피부과 이지현·방철환 교수 연구팀이 참여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2002~2013년 데이터를 활용, 순차연관분석(sequential pattern mining) 기법을 이용해 질병간 관계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교수는 “이번 연구에 사용된 순차연관분석은 고객관계관리(CRM)에서 사용되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분석방법으로 학제간 융합연구를 통해 질병들간의 관계를 규명했다는 것이 경이로웠다”며 “의학 분야에서도 빅데이터 분석이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고 전했다.



이석준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

손발톱무좀은 손발톱과 관련된 질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흔한 질환이다. 2016년 심평원에 따르면 손발톱무좀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 수가 118만 명에 달한다. 손발톱무좀은 피부 무좀과 달리 증상이 거의 없고 손발톱을 파고 들어가 살기 때문에 피부 각질이 생기는 일 반 무좀보다 치료도 힘들다.

손발톱무좀의 발생과 관련된 인자로는 나이, 성별, 만성질환, 흡연, 면역 이상 등이 알려져 왔다. 하지정맥류, 말초혈관병

등을 포함한 혈관 질환의 경우에도 손발톱무좀을 증가시킨다는 기존 연구가 있으나, 이에 대한 대규모 연구가 이뤄진바 없고, 혈관 질환과 손발톱무좀의 연관관계를 양방향으로 확인한 것인 이번 연구가 처음이다.

연구 결과 하지정맥류를 앓고 있는 환자의 1.26%가 손발톱무좀을 동반했고, 이러한 동반률은 다른 혈관 질환에 비해 높은 이환율을 보였다. 특히 하지정맥류로 진단받은 환자는 25.5일 후 손발톱무좀을 진단받는 경향을 보였고, 말초혈관병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55.1일 후에 손발톱무좀을 진단받는 경향을 보여 다른 혈관 질환에 비해 더 짧은 기간 안에 손발톱무좀으로 병원에 내원했다.

또 손발톱무좀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말초혈관병이 동반될 위험성이 대조군에 비해 19.9% 높았고, 하지정맥류가 동반될 위험성은 15% 높았다.

이번 연구는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의 자매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 12월호에 게재됐다. /한용수 기자

## “디즈니 애니메이션으로 영어회화 배우자!”

#### 에스티유니타스 ‘커넥츠 스피킹’ 론칭

에듀테크기업 에스티유니타스는 디즈니 코리아와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디즈니 콘텐츠를 바탕으로 만든 기초 영어회화 교육 서비스 ‘커넥츠 스피킹’을 론칭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미 ‘커넥츠 영단기’ 등을 통해 다년간 영어 교육 노하우를 쌓아온 에스티유니타스는 이용자들이 영어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느낄 수 있도록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영어공부와 접목, 회화에 최적화된 영어표현 학습법을 개발해 커넥츠 스피킹에 적용했다.

‘겨울왕국’, ‘인사이드 아웃’, ‘라퐁젤’ 등 총 50편의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영어표현을 분석하고, 이 중 실생활

에서 매일 쓰는 유용한 표현 약 4500개를 추려 영어 왕초보도 쉽게 익힐 수 있는 강의를 만들었다. 애니메이션의 주요 장면을 먼저 보고, 해당 장면에 등장한 ‘오늘의 표현’을 강사의 설명을 통해 학습하며 반복해서 익히는 형태다. 강의는 5~10분 가량으로 짧게 구성해 출퇴근길에도 간단히 들을 수 있다.

전문성과 재미를 겸비한 우수한 강사진 라인업도 강점이다. 피겨선수 김연아의 전담 강사로 유명한 ‘에리카’를 비롯해 EBS, 아리랑TV에서 영어 강사로 활동 중인 ‘헤일리’, EBS 및 유튜브에서 영어 강의를 진행하며 젊은 층에게 선호도가 높은 ‘메이슨’, 순수 한국과 영어 박사인 ‘조정현’, 미국 ‘UC 데이비스’ 대학 출신의 원어민 ‘크리스’가 직접 강의에 나선다.



론칭 기념 이벤트도 다양하게 진행한다. 710여개의 강의를 1년 동안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커넥츠 스피킹 프리패스’를 오는 14일까지 구매 시 ‘어어팟’과 ‘주먹왕 랄프2 예매권’을 무료로 제공한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디즈니 왕초보 영어 BEST’ 강의를 수강한 후 영상 후기를 남기는 이용자 전원에게 ‘백화점상품권 5만 원권’을 지급하며, 이 중 추첨을 통해 뽑힌 1명에게는 ‘홍콩 디즈니랜드 입장권 및 여행상품권(50만원 상당)’을 제공한다. 포토 후기를 남기는 이용자에게도 ‘백화점상품권 5000원권’을 지급한다. /한용수 기자